

2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으니 내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또 내 말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는 몰라도 된다.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다.
나의 말을 잘 받아 쓰거라.”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밥을 하루에 세 번씩 먹어야 튼튼한 어린이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어린이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매일 읽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매일매일 읽기로 약속해요.



교제해요

1.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는 무엇인가요?



2. 성경을 잘 읽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3. 부모님과 함께 존경하는 성경인물과 본받을 점을 적어 보세요.

성경 인물



본받을 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찌어다(베드로후서 3:18)

암송

암송을 따라 써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기도하는 어린이



성경을 매일매일 꼭 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
요.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선생님께

부모님께

알고 싶어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켄터키
주의 산골 어느 마을에서 태어
났습니다.



가난한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링컨이 11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링컨, 엄마는 먼저 하나님께 간다. 너에게
줄 집과 재산은 없지만 이 성경을 물려주고
싶구나. 언제나 이 성경 말씀대로 살거라.”
어머니는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
씀대로 성경을 읽고 배우
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
습니다.



마침내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
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